

가해

연중 제14주일

기초 자료

마음이 온유하신 임금님

부산고구 청소년사목국

임금님이 오신다

"딸 시온아, 한껏 기뻐하여라. 딸 예루살렘아, 환성을 올려라.
보라,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." (즈카 9,9)

=> 임금님이 되돌아오시기 때문에 유배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을
기뻐하라는 말

"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,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
...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." (즈카 9,10)

=> 임금 메시아가 오시면 북이스라엘, 남유다뿐만 아니라
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.

겸손한 임금님

✓ 겸손에 대한 표현

아니(히브리어 번역) = 팝박받고 가난한

프라위스(그리스어 번역) = 친절하고 온유한

"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..." (마태 11,29)

=> 온유하신(프라위스) 임금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며,
팝박받고 철저히 가난한 모습(아니)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

임금이 선포하는 평화

"그분은 ...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." (즈카 9,10)

"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.

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." (마태 11,28)

=> 예수님이 진정 즈카르야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어주시는 분

나에게서 배워라

"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."

(마태 11,29)

"행복하여라, 온유한 사람들!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." (마태 5,5)

=> 예수님이 펫박받고 가난한 모습을 보면

그분의 명예가 세상적 관점에서는 힘들게 보이지만,

실은 가장 편하고 가벼운 짐을 지는 삶임을 강조하심

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만이

예수님의 길을 따라나서는 철부지가 될 수 있으며,

그런 이들만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다.

아버지의 선하신 뜻

"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." (마태 11,26)

✓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

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 놓으신 예수님은 "아니(겸손=온유)"

하신 분 -> "온유"란 하느님의 뜻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태도

=>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모여드는 이들만이 평화와 안식, 곧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차지

성령의 힘

"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." (로마 8,13)

=>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

그분에게서 하느님의 선하신 뜻을 배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.

마음이 온유하신 예수님은
오늘도 우리에게

당신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어 줄 테니
철부지들처럼 당신에게 와서 의탁하라고 말씀하신다.